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45호 / 2026년 10월 19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20일, 임단협 14차 교섭 진행!

- 쟁대위, 지회별 현장 반응과 교섭 상황 고려해 투쟁 수위 논의할 것

내일 10/20일(화) 14차 임단협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한달만에 진행되는 교섭이다.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교섭과 투쟁도 달라질 것이다.

특근 통제 이후 현장의 반응과 평가는 지회별 다양하다. 투쟁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쟁대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교섭 상황을 종합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근 통제가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무직의 투입으로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것이다.

■ 조기 타결 바라지만, 사측이 버틴다면 길어질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차까지 이어진 교섭과 두 차례의 중노위 조정에서 사측은 조정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고정OT, 월급제수당, 성과급 등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안에는 지금도 답이 없다.**

사측이 사무직 등의 투입으로 생산과 납품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특근 통제의 효과와 현장의 변화, 사측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우리가 투쟁 의지를 더 집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교섭이 길어질수록 노사 모두의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낸 회사가 안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 조기 타결은 어렵다. **교섭 석상에는 위임장을 든 총괄대표가 앉아 있고, 최종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진다. 조기 타결은 말이 아닌 구체적 제시안이 나올 때 가능하다.**

안전수칙 준수? 사측의 민낯이다

- 숨막히는 생산량,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회사다.

지난 10월 14일(수) 오후 4시 20분 경 익산공장 조립공정 방호울 안에서 조합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22일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또다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사측은 이틀 뒤 대자보를 붙여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쾌유를 비는 한 줄 뒤에 곧바로 따라온 것이 책임 추궁이었다.

안전수칙을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다치는 구조를 만들고 방치한 사측의 책임은 없고, 다친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묻는 것이다.

익산공장은 LOTO 없이 작업자가 인터록 키를 들고 방호울에 들어가고, 표지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작업자가 인터록 키나, 표지를 못 거는 순간 곧바로 사고가 되는 구조다. **사측은 평택공장 중대재해 이후 전사 안전보건진단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약속했다. 그럼 익산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답해야 한다.**

□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뒤로는 생산차질 때문에 사무직 투입!

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경영진은 약속만 하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를 위한 노동조합의 산보위 개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사무직 생산 투입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교육, 건강검진 자료 요구 등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대자보를 통해 “그 어떤 이유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 고 한다. 그러면서 “생산차질과 부품사로서의 의무” 는 강조한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이고, 사무직의 안전보다 부품사 의무가 우선인 것이다. 이것이 사측의 민낯이다.** 숙련된 조합원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이다. 그렇다면 숙련되지 않은 사무직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사측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밥먹듯 위반한 것이 근로감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산보위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만들어 허위 신고까지 한 사실이다.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을 요구하려면 사측 역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고 이후 책임을 묻기 전에 엄정한 조치를 언급할 자격은 갖추었는지 묻고 싶다.